

## 2022 THEME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 GO DEEPER

# GO HIGHER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에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school)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 · 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Pre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찬31/새67장)
-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병찬 장로 2부/Sam Kim 장로 3부/김성균 집사 4부/심제이슨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거룩한 주(편곡 David T. Clydesdale)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 Media 방송실
- 유아 세례식(3부) Infant Baptism ..... Eunice Jun 전예을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마태복음 6:13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6:14-29
- 말씀 Message .....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게임 체인저(25) '영원 보험' 하나 드세요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17) 죽음으로 길을 열다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나의 갈 길 다가도록(찬434/새384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Go Deeper Go Higher
- \*축도 Benediction .....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 46년의 세월(1)

### 46 Years of Time (1)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교회 설립 46주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개무량합니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변함없이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와 함께하셨던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나 좋은 열매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작명이었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늘 그 자리에서 언제 돌아봐도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떠나지 않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세월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면서 고비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의 나이 46세 때를 돌아보니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고등학교 11학년, 10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이사를 감행한 때였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안정적인 삶의 기반에 머물러야 할 시기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만큼이나 모험 같은 이주를 했습니다. 저에게 캘리포니아는 익숙하고 안정된 고향 같대야 우르르 떠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떠나는 모험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평생 4계절이 있는 동부에서 살다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왜 전부 한국 사람만 있어요?” 저의 대답은 “음, 여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야.” 아이들이 겪었을 문화충격을 생각해 보면 절로 웃음이 납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막내딸이 한국말로 통신문을 받아올 때 정말 여긴 한국이다 싶었습니다.

교회 나이 46세는 한편 안정된 시기이며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는 시기이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는 또 다른 도약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성숙은 안정을 위한 선행 조건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조건입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하지만 장성하면 딱딱한 음식을 먹듯이, 중년의 나이 46세는 모진 세월을 통과해 온 경험과 노하우가 모아져 이제는 성숙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땅을 향하여 갈 때라고 믿습니다.

“함께 하는 포용력” 저는 성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젊음은 파릇한 기상과 진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은 옆을 돌아보는 여유이며 함께 가는 지혜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은 왜 ‘벧엘’이라고 쓰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던져 받지 않은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델”은 이제 고유명사가 되었고 어떤 곳에서는 ‘베델’이 글맵시가 더 좋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왜 교회 이름이 ‘베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46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불굴의 헌신으로 달려온 부흥 주역으로 하나님의 고유한 손자국이 있는 이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유명사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보통명사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베델의 식구들 그리고 지역 한인 사회 그리고 미 주류 사회와 함께 가며 주의 뜻을 선포하는 베델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As we approach our church's 46th anniversary, I am overwhelmed by God's grace. God has been faithful with the church through almost half a century. We confess that, if there were good that came out of us, or bore any good fruit, it is all God's work. We give all glory to God. And, I would like to thank our congregation who prays constantly and worships, always sitting in the same spot whenever I look. There were difficult times that came and gone like passing street lamps, but we cannot deny God's guidance and safety with His staff and rod through each struggle.

When I look back on myself at age 46, it was a time of greatest change in my life. My family moved from East coast to West coast when my kids were in high school, 11th and 10th grades. This was a critical time for my kids to have stability. The move was as adventurous as when I immigrated to U.S. from Korea. Coming to California, I felt like when Abraham left his familiar home of Chaldean Ur to go to Canaan. It felt adventurous. Leaving behind four seasons of East coast, I remember what my daughter said when we arrived in California. “How come everyone is Korean?” I answered, “Hmm. This is not U.S. This is Korea.” I laughed thinking of the cultural shock that my kids would face. When my kindergarten daughter brought home a notice from school in Korean, I really wondered if we were in Korea.

Our church becomes 46 years old. It is time of stability and smooth ride. On the other hand, it is time for new challenges to leap forward. Maturity is not required for stability. It is required for growth. Infants need to drink milk. As they grow, they are able to chew and eat hard foods. Last 46 years, we have passed through hard times and gained experiences to know how to get to a place that we couldn't when we were immature. It is now time to leap forward to that place where we couldn't before.

I like to define maturity this way. Maturity is to embrace together. Young people are bright and enterprising. However, matured folks have room to look around and wisdom to go together. No one questions about our name 'Bethel' any more (In Korean Bible, Bethel is spelled differently. Our church name Bethel does not follow the traditional spelling in Korean Bible.). It has become a proper noun. I don't really know how and when this Korean spelling of Bethel changed for our church. After 46 years, I see God's handprint and His will as we made sacrifices, running the race with dedication, and His revival. However, we must not remain just as a proper noun. We must become a noun. It is time for us to move forward, leading the faith community. I bless Bethel that, as Bethel families, our Korean community, and American mainstream society move together, Bethel will lead the way to His will.



주일설교시리즈  
산상 설교 강해- 제25편  
**게임 체인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 '영원 보험' 하나 드세요

(마 6:13)

1. 우리가 흔히 암송하는 주기도문과 오늘 본문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2.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1) \_\_\_\_\_ (참고/마 25:21, 23)

2) \_\_\_\_\_ (참고/시 127:1)

3) \_\_\_\_\_ (참고/고전 10:31)

3.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참고/ 롬 8:14-15)

4.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영원의 의미를 생각하며, 영원을 향한 보험을 들었는지 서로 확인합시다.(참고/ 요 10:28)

■ 적용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찬434/새384장), 예수 하나님의 공의

## 세례 사역 - 유아

##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신앙의 자녀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약속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는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신앙 의례이고, 부모에게는 소중한 신앙 체험입니다. 소망의 씨앗을 품는 마음으로 베델의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 모두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희에게 재덕이를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덕이의 영어이름은 Nathan이고,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지닌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만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기도하며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성/서윤희 성도(서재덕)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열매인 하늘이라는 선물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늘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혜를 구할 때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윤창식/윤보라 성도(윤하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준서가 유아세례까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서를 양육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며 키우겠습니다.

허광주/허다솜 성도(허준서)



하나님께서 지아를 주신만큼, 저희 또한 지아가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잘 양육하겠습니다. 또한 지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예비하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아의 앞날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해 저희 가정과 지아를 축복해주시는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류정빈/정인경 성도(류지아)



먼저 저희 가정에 이렇게 귀한 아기를 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귀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직 부족한 부모이고 두려운 것도 많지만, 순종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노아를 양육해 주시리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노아를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른 가치를 가르치며 키우겠습니다.

김현중/송예랑 집사(김노아)



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하고 큰 선물입니다. 준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것 같습니다. 준서가 성장해 나가며, 또 하나님을 알아가며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키울 수 있도록 기도와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김준희/티나김 성도(김준서)



이번 세례를 통해 저희딸 로희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사에 부족한 부모이지만 주님께서 나날이 채워주실 지혜를 구하며 저희 딸 로희가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향기로운 주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장현/조혜리 성도(함로희)



예성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베델교회와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은혜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김종석/변정아 집사(김예성)



영어 예배(BGC)

# 믿음의 승리 “The Victory of Faith”



지난해에 새로 단장한 BGC 성전에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숲을 지나 BGC 영어 교회에서도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선교지에서, 또 가족 캠프를 통하여, 제자훈련과 셀모임과 여러 영성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올여름에 저희는 7월 25일-31일까지 LA의 'Watts Powerhouse Missions'로 일주일 동안 그곳의 형제자매들과 자녀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어 고등부 학생들과 영어 교회팀 총 14명이 함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며 근처의 홀리스 가족들과 청소년들과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사역 또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과 9일에는 남쪽 오렌지 카운티의 공원에서 가족 캠프시간을 가졌습니다. 50명의 어른들과 27명의 어린 아이들이 서로를 알아가며 삶을 나눌 수 있었던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일 년에 한번 갖는 가족 캠프 시간은 온 가족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서로 격려하며 자녀들을 함께 양육할 수 있는 BGC 가족들이 있어 힘이 나곤 합니다. 주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 가심을 보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셀모임에서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주일에 주신 말씀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서의 생활을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18명의 셀그룹리더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은 저희의 삶을 채워 주십니다. 또 일 년의 결단을 하며 LOLMD (Life on Life Missional Discipleship)를 사용하여 제자반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은 자들이 헌신된 자들로 이어지는 과정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제자훈련과정을 통하여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 년에 두 번씩 교회 대청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새로 단장한 저희 교회건물을 주인의식을 갖고 잘 관리하며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순서 하나하나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7월 21일에는 영어 교회에서 예배와 대학부를 인도하시는 Peter Lee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열정을 다하여 섬기시는 Peter Lee 목사님께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영어 교회에서는 가족중심으로, 그리고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순서들과 맛난 음식도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시간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매년 네 번의 세례식을 실행하고 있으며 성찬식은 매달 첫 주일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자리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에는 많은 영어 교회의 사역자들과 리더들의 컨퍼런스를 통하여 우리 교회 리더들이 다시 훈련받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토픽으로 다음 세대를 치유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과 리더들은 늘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것입니다. 저희 BGC 영어 교회 사역자들과 리더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Dan Nam (EM Family 목사)



## 새가족 소개

## 뒤돌아보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국에 이민온 36년 차인 저는 나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족 모임에서조차 큰소리로 대표기도 한번 못하는 소심한 신자입니다. 얼마 전 저에게 많은 생각

과 기도를 하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직장암이었고 어쩌면 항문도 닫고 평생 호스를 연결하고 살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자궁에도 문제가 있어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

도 잘하고 있는 동생에게 생긴 일에 화도 나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제가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기도뿐이란 걸 깨달았고 그저 늘 '~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하던 제 하찮은 기도가 너무나 절실한 마음의 기도로 바뀌었고, 하나님께서는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제 동생은 6시간이나 되는 큰 수술을 받았던 신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정도로 수술도 잘 되었고 회복도 빨라서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감동받았던 더 놀라운 은혜는 베델 교인들이 보여주시는 진심 어린 보살핌

과 위로, 그리고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집 앞에 배달되던 베델교회에서 환우에게 제공해주는 '예향'의 정성스런 음식과 매일 기도하고 있다며 베델 교인들이 보내주시는 진심어린 격정의 수많은 메세지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운 설교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새신자들을 가족처럼 반겨주시는 한순교전도사님과 목회자분들, 그리고 저와 우리 막내에게 따스한 사랑과 위로를 주신 베델교인 여러분, 특히 낮선교회에서 곁돌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집처럼 편하게 마음 써주시는 윤성자 권사님과 차규양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델교회, 사랑합니다.

육수지 성도

## 베델 선교-태국

## 태국의 그리스도의 향기



태국은 선교적으로 수교하는 것만큼 열매가 없어 기독교인이 0.7%가 전부인 나라는 얘기를 듣고, 그 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의문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VBS와 의료사역을 하였던 치앙마이의 송크라학교는 고아와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40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기독교학교였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과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저희 팀 모두는 두 팔 걷어 부치고 열심히 사역하였습니다. 그 후 방문한 박상선, 신영선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시는 드림교회는 20여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

으며, 태국 전국 300개의 현지 교회에 학생 성경공부 교재를 공급하는 디모데 센터는 작은 가정집을 개조한 시설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본 저희 사역지들은 분명 초라하고 열악했지만, 송크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드림교회에서는 뜨거운 현지인 예배가 드러지고 있었으며, 디모데 센터는 5000명이 넘는 현지 아이들에게 성경공부 교재를 공급하는 교육과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육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바라본 태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분명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이미 탐스럽고 소중한 선교의 열매들이 충분히 맺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김정범 집사

베델교회에 20년을 다니면서 선교는 저와는 먼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만 대던 저를 하나님은 태국선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와 큐티를 하며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해 달려갔습

니다. 코로나 이후,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가는 태국 선교지로 갈 수 있게 되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30시간이나 걸려서 갔는데 전혀 피곤함도 없이 그 다음날부터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상황속에서도 우리들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 곳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하게 번져가는 중에도 끝까지 섬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역이 끝날 때 마다 비가 내려서 더위를 이겨낼 수 있었으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고아원 아이들의 모습과 환경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을 지내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곳에서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복음의 메세지가 넘쳐나길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도 다시 초심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선교지에 가보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내어 꼭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연 권사



##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현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교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살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예살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다음세대 S.P.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유년부: 이숙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해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사역광고

# B+B 이혼 가정 회복 세미나

베델교회의 가정 사역인 Beyond the Blue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배우자, 부모, 자녀 등), 별거 혹은 이혼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돕는 치유와 회복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는 이별(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한 부모 가정과 자녀를 위한 제7회 Divorce Care와 DC4K(Divorce for Kids)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인생의 풍랑의 때를 만나셨습니까? 노력하고 애써봐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중에 계십니까? 한 부모가 되어 책임져야 할 자녀를 생각하며 홀로 눈물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몰아치는 현실 속에 말 못 할 아픔을 함께 아파하길 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함께합니다. 나눔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Divorce Care가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될 자녀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DC4K(Divorce Care for Kids)가 함께 돕겠습니다.

### 〈프로그램 소개〉

- ① Divorce Care (이혼 가정 회복모임): 별거 혹은 이혼의 아픔에 잠긴 가정의 회복을 돕고 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영상 세미나 및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 ② DC4K (Divorce Care for Kids/이혼 가정 자녀 모임): 가정이 나뉘는 아픔에 있는 자녀에게 희망을 주고 가족 간의 건강한 관계 발전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시청각 세미나〉

- ① 전문가들의 통찰력 있는 임상 경험과 조언.
- ② 소그룹 모임: 영상 시청 후 내용과 삶의 경험을 나누며 내면 성찰.
- ③ 실습, 과제, 성경 구절 묵상, 기도, 간증.

- ▶ 날짜: 9월 9일-12월 9일 매주 금요일(총 13주 과정) ▶ 장소: 베델교회 비전센터(할렐루야 채플)  
 ▶ 시간: 오후 7시-9시(저녁 식사, 자녀 프로그램 제공) ▶ 참가비: \$25 (교제비)  
 ▶ 참가 신청: [www.bkc.org\(beyond the blue\)](http://www.bkc.org(beyond the blue)), 교회 본당 앞 신청 부스  
 ▶ 문의: 정우영 장로 (949)943-7820, 이란해 전도사 (949)422-8828



### 예배 봉사자

|               |       |        |        |        |        |
|---------------|-------|--------|--------|--------|--------|
| 주일예배 대표기도(9월) | 9/11: | ①부-김수명 | ②부-김인규 | ③부-김인권 | ④부-이종원 |
|               | 9/18: | ①부-김진환 | ②부-김교식 | ③부-김연조 | ④부-이신경 |
|               | 9/25: | ①부-김응진 | ②부-김정윤 | ③부-김수열 | ④부-이재주 |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9,10월) | 9/10: 박상범 9/17: 손상현 9/24: 손석환 10/1: 손성모

강단꽃(9월) | 9/4: 이상덕 9/11: 김홍식, 정배호 9/18: 김인권, 손서영, 이강훈, 조혜성 9/25: 서예나, 서덕령, 김정연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노완규(내과), 간호사-윤경자

다음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내과), 간호사-이정하

### 선교후원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Karim, 박기쁨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익식(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영), 희바(배안)

\*선교기관 | 나눈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터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M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BS, CTS, CGN TV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 베델 알림판

## Bethel Announcements

◆ **하반기 셀모임 시작** 9월 4일(주일)부터 하반기 셀모임을 시작합니다. 셀 목자 정기 모임은 9월 17일(토)부터 시작 됩니다.

◆ **수요 예배** 9월 7일과 14일은 김홍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 후 담임 목사님의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네개" 시즌 2가 시작됩니다.

◆ **베델 MIT 대학 개강** 9월 7일(수) 수요예배와 입학식으로 시작하여 11월 16일에 발표회와 함께 종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은혜와 재미가 넘치는 MIT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모시고, 베델 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9월 17일(토) 오후 5시, 유년부 예배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교회학교 새학년 시작** 9월 첫째주(오늘)부터 교회학교 새학년이 시작합니다. 지난주 졸업한 학생들은 오늘부터 새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 **교회학교 오픈하우스** 새학기를 맞아 교회학교에서 오픈하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각 부서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일정: 9월 11일-유아부와 유년부, 9월 18일-초등부, 9월 25일 K-1

◆ **9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9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CIM 교사 및 TA 모집**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는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 **BYM 중등부 학부모 모임(PTA)** 오늘(4일) 중등부 PTA 미팅이 있습니다. 올해에 하나님께서 중등부에 주신 비전과 꿈, 그리고 프로그램 등, 많은 것들을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9월 4일(주일) 오후 1시, 비전채플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현호승 전도사 (949)677-4911

◆ **BYM 중등부 금요 훈련 프로그램** "Sports & Discipleship I - The Life of King David"으로 모입니다. 저녁식사와 함께 말씀을 배우고 운동으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영과 육을 새롭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싸인업은 BYM 중등부 팀장이나 담당 전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9월 16일(금)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8시 30분

◆ **BYM 고등부 금요 예배** 고등부 금요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시간: 9월 9일(금) 오후 6시 30분-저녁 식사, 오후 7시 30분-예배  
문의: 여육제 목사 (818)270-5454

◆ **가정 회복사역 Beyond the Blue(Divorce Care & DC 4K)** 홀로 되신 분들과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미국 전문 상담가들의 상담과 조언을 영상으로 보고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9월 9일(금)-12월 9일(금), 13주간, 할렐루야 채플(저녁식사제공)  
문의: 정우영 장로(949)943-7320, 이란해 전도사(949)422-8828

◆ **우간다(박민수/이순영 선교사) 단기선교팀 모집**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 내용: 건물 페인팅, 어린이 VBS, 의료, 사진, 장애우 섬김 등  
선교 기간/문의: 10월 17일(월)-10월 26일(수), 박원규 장로 (949)433-0557

◆ **베델 한국학교 2022 가을학기 성인반(온라인)** 10주 동안 진행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통해 읽기, 쓰기와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일시/대상: 9월 14일-11월 16일,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9학년 이상의 성인  
등록 방법/등록 기간/등록비: 온라인 등록 school.bkc.org, 9월 13일까지, \$200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한국 수해현금** 1,2차 수해 현금 총 \$28,708,82을 (사)복음과 도시라는 단체로 보내졌고, 이 현금은 영광스러운교회(군포, 유상규 목사), 축복교회(신림동, 광정문 목사), 은정교회(신림동, 최상일 목사), 반석교회(관악, 박진석 목사), 강동광업교회(박종영 목사), 관악구 복지관, 아트리(크리스천 예술인 공동체) 등에 전달되었습니다. 동참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OC 순회영사업무시간 확대를 위한 서명** 매주 금요일 OC회관에서 순회 영사업무를 하고 있으나, 오랜지카운티 인구 증가로 인하여 업무에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OC한인회는 한국정부에 영사업무시간 확대를 요청하기 위한 서명을 받습니다. 주보에 삽지 된 서명서를 작성하셔서 예배 후, 코트야드 부스에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코트야드 공사 안내** 공사가 진행 중이오니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 위치 안내** 실내카페 자판기 옆과 유년부실 입구 쪽(구, 음수대)에 식수가 있습니다.

◆ **베델교회 스마트폰 APP 안내** 당분간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하해 주세요** 오늘(4일) 3부 예배 때 전민혁/백혜인 집사의 딸 전예을(Eunice)의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임종상 집사님(박미숙 집사의 부친, 박선재 집사의 장인)께서 8월 21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한정수 성도님(한아름 집사의 부친, 최홍호 집사의 장인)께서 8월 31일(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집사, 정지혜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비전 주차장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갈릴리 수양관 3164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 Obtain the 'Insurance of Eternity' (Matthew 6:13)

**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Lord's Prayer and today's Scripture?

Apply to Life



**2.** Summarize the meanings of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below.

1) \_\_\_\_\_ (Ref/Matt 25:21, 23)

2) \_\_\_\_\_ (Ref/Psalm 127:1)

3) \_\_\_\_\_ (Ref/ 1 Corinthians 10:31)

**3.** To whom does it say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belongs? What does this teach us?  
(Ref/Romans 8:14-15)

**4.** Only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of God are eternal. Think about the meaning of eternity and confirm whether you have the insurance of eternity or not. (Ref/ John 10:28)